

«Wook-kyung Choi: American Years 1960s – 1970s»

최옥경은 1940년에 태어나 45세의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되었다. 최옥경의 화가로서의 삶은 20년 남짓하며, 그 가운데 1963년부터 1978년까지 15여년을 미국에 체류하며 작업활동을 했다. 이 시기는 최옥경이 화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자신의 화풍을 정립하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옥경의 미국 시기는 1963년부터 1971년, 그리고 1974년부터 1978년까지로 구분된다. 이 기간 동안 최옥경은 추상표현주의에 영향을 받은 회화와 잉크 드로잉, 팝아트 경향의 종이 콜라주 작업을 했으며, 이와 병행해서 상당량의 인체 소묘작품들도 남겼다. 최옥경의 미국 체류 시기에 포커스를 맞춘 이번 전시는 인체 소묘를 제외한 추상 회화와 종이 콜라주 작업을 중심으로 소개된다. 본 전시에는 어느 정도 연대 미상의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미술사적 고증을 거쳐 미국 시기로 확정된 작업들은 아니다. 작품 스타일이나 작가의 자료 등을 통해서 미국 시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작업들이다.

이번 전시는 최옥경의 작업세계를 재조명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먼저 최옥경의 작업과 추상표현주의를 포함한 미국 현대미술과의 관계를 재해석해 볼 수 있고, 또한 60-7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지형도에서 최옥경 작업에 대한 재조명도 가능해 보인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 한국 미술계는 한국 아방가르드로 지칭되는 행위미술이나 설치 작업, 그리고 단색화 운동과 국전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경향으로 양분되어 있었고,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보다는 유럽의 앵포르멜과 일본의 모노하 영향이 더 지배적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옥경의 추상표현주의 경향의 회화는 한국 아방가르드 진영에게는 철 지난 미술처럼, 또 보수적 경향에게는 아직 생경한 추상화로 간주되었다. 최옥경은 이 모든 진영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며 당시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963년부터 1971년까지 최옥경의 회화는 추상표현주의 영향에 관한 작가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추상표현주의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미국 추상표현주의는 1940년대 시작되어 최옥경이 유학할 무렵에는 이미 미국 미술계에 정착된 운동이었으며, 유학 이전부터 도록을 통해 이러한 화풍을 접했던 그에게 추상표현주의는 그다지 생경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잭슨 폴록의 회화를 직접 본 후 그는 “어떤 주의나 운동을 초월해서 그것은 그림과 관객 사이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문제를 제시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회화에서 찾았던 르네상스적 원근법이라든가 큐비즘이 보여 주는 그런 공간이 아닌, 말하자면 무수한 공간 같은 그런 걸 제시하는

것 같다¹”고 회고한다. 최욱경은 추상표현주의 회화에서 무한한 공간을 발견했고, 작가에게 그 공간은 이제 더 이상 현실을 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한 또 다른 무한의 세계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최욱경의 추상회화는 폴록의 드리핑이 만들어 내는 무한공간에 감동을 받으며 윌렘 데 쿠닝의 잠재의식의 분출과 공격적 제스처와 교감한다. 이 시기 최욱경의 회화는 추상표현주의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스타일을 소화하며 최욱경 고유의 ‘추상표현’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욱경은 자신의 회화에 대해 “어떤 특정한 착상이나 계획 없이 직접 돌입하며 상황들을 전개시키면서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유발되는 형상들과 그들이 제시하는 것들을 주목하고, 선택하고 정리하면서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²”이라고 정의한다. 최욱경은 또한 이 시기에 상당수의 잉크 드로잉과 종이 콜라주 작업들을 시도했다. 흑백 드로잉은 데 쿠닝, 프란츠 클라인, 로버트 마더웰의 굵은 선들과 제스처를 연상케 하는 반면, 콜라주 작업은 라우센버그의 컴바인 페인팅과 팝아트 경향을 띠고 있다. 작가는 잡지광고, 신문기사를 오려 붙이고 채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은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In Peace>(1968),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승자는 누구인가?(Who is the Winner in This Bloody Battle?)>(1968)와 같이 60년대 말 미국의 인종차별, 반전시위와 같은 시사적 사안에 반응하는 작업들도 찾아볼 수 있다. 최욱경의 드로잉과 콜라주는 제스처가 유발한 자연발생적 형상들과 현실의 구체적 주제들을 소환한다. 그에게 추상회화가 형상을 지우며 무한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었다면, 드로잉과 콜라주는 회화에서 사라졌던 형상이 다시 돌아오며 현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김성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¹ 최욱경, 정관모, 「현대 미국 미술의 정황과 두 작품전」, 『공간』, 1974년 1월호, p.30

² 『공간』, 1985년 5월호, p.39